

고령군 지형경관자원의 분포와 활용방안*

손 명 원**

Distribution of Geomorphological Landscape Resources of Goryeong-gun, and Its Application Plan*

Son Myoung Won**

요약 : 본 연구에서는 고령군에 산재하는 지형경관자원을 발굴하여, 그 분포를 지도화 함으로써 지형경관자원의 관리에 기반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지지역에 분포하는 지형경관은 고령읍의 미승산과 주산, 그리고 덕곡면 노리의 상비리 계곡, 개진면 오사리의 고립구릉 등이다.

둘째, 하천 연안에 분포하는 지형경관은 개진면 부리의 진촌늪, 다산면 호촌리의 호촌늪과 달성습지, 우곡면 봉산리의 봉산늪 등의 자연습지, 고령읍 외리와 개진면 반운리의 보 축조에 따른 인공습지, 개진면 반운리의 곡류 절단에 따른 구하도와 곡류 해, 고령읍 내곡리와 우곡면 월오리의 하식애, 우곡면 야정리의 넓은 모래톱과 망류하도 등이다.

셋째, 개진면 부리의 진촌늪은 전형적인 범람원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하므로 생태공원을 조성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개진면 반운리에는 탐구학습장을 조성하여 감입곡류의 절단과 연관된 환경변화와 보의 생태학적 순기능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주요어 : 주산, 진촌늪, 자연습지, 생태공원.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geomorphological landscape resources of Goryeong-gun,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their management through mapping their distribution, and to present their conservation and application plan.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ly, geomorphological landscape resources in mountain area are Misungsan and Jusan mountain of Goryeong-up, Sangbiri valley of Deoggok-myeon, and isolated hill of Gaejin-myeon.

Secondly, geomorphological landscape resources in riparian area are natural wetlands such as Jinchonneup of Bu-ri Gaejin-myeon, Hochonneup and Dalseongseupji of Hochon-ri Dasan-myeon, Bongsanneup of Bongsan-ri Ugok-myeon; artificial wetlands following the construction of weir such as riparian wetland of Oe-ri Goryeong-up and Banun-ri Gaejin-myeon; meander core and abandoned channel of Banun-ri Gaejin-myeon, river cliffs such as Naegok-ri Goryeong-up and Weolo-ri Ugok-myeon; sand bars and braided channel of Yajeong-ri Ugok-myeon.

Thirdly, Jinchonneup swamp area of Bu-ri Gaejin-myeon have characteristics of typical floodplain landform, and its conservation conditions is relatively satisfactory, and its accessibility to metropolis is great, so it is a good place to construct eco-park. And construction of inquiry learning place at Banun-ri Gaejin-myeon will increase the opportunity to observe environmental changes following incised meander cutoff and ecological affirmative functions of a weir.

Key Words : Jusan Mountain, Jinchonneup swamp, natural wetland, eco-park.

1. 서 론

최근 선진국에서는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와 더불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허철호·최상훈, 2007). 지형경관은 자연생태계의 무기적 환경을 구성하므로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

는 지형경관자원을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지형경관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허철호·김성용·윤성택, 2005).

고령군은 한반도의 남부 내륙지방인 경상북도의 남서쪽 끝부분에 위치하며, 동쪽은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경상남도 창녕군, 남쪽은 경상남도 합천군, 서쪽은 경상남도 거창군과 경상북도 김천시, 북쪽

* 본 연구는 한국지역지리학회의 '고령군 기초연구 용역사업(2008)' 결과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재집필한 것임.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smw@daegu.ac.kr)

고령군 지형경관자원의 분포와 활용방안

은 경상북도 성주군과 마주하고 있다. 고령군에는 대가야국(大伽倻國)의 도읍지였던 유서 깊은 곳으로, 선사시대의 암각화를 비롯한 대가야의 고분군, 조선시대 성리학자인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생가 등 많은 문화유산이 있다.

고령군은 동으로 낙동강과 접하여 있으며, 서로는 가야산으로 이어져 구릉성 산지를 이룬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군에 산재하는 지형경관자원을 발굴하여 그 분포를 지도화 함으로써 지형경관자원의 관리에 기반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지역 개관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실내작업과 야외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실내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고령군청 홈페이지에 등재된 주요 지형경관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지형도(1:50,000과 1:25,000)를 이용하여 주요 지형경관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하였다. 야외조사에서는 실내작업에서 선정된 지점을 중심으로 지형경관을 조사하였으며,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였다.

2) 연구지역 개관

고령군은 1읍(고령)과 7면(덕곡, 운수, 성산, 다산, 개진, 우곡, 쌍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7년 현재 고령군의 인구는 14,769 세대에 34,786명(남 17,722명, 여 17,064명)으로, 90명/km²의 인구밀도를 나타낸다(고령군 홈페이지). 고령군은 낙동강 중류에 위치하여 범람원이 넓고 토양이 비옥하여 물산이 풍부하며, 낙동강을 이용한 내륙수운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고령군, 1996).

고령군의 지세는 서부의 산지, 중부의 저지, 동부의 구릉성 산지로 구분된다(그림 1). 가야산 동남부 산록에 위치하는 서부의 산지는 선캠브리아기의 소백산변성암복합체에 속하는 반상변정편마암과 시대미상의 고령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부의 저지는 가야산 북부를 감싸는 대가천(大伽川)과 남부를 감싸는 안림천(安林川)이 만나는 합류분지이다. 이 지역은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된 신라역암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천을 따라 제4기 충적층이 분포한다. 하천 주변에는 넓은 범람원이 발달하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동부의 구릉성 산지는 고도 300m 이하로 완만한 기복을 보인다. 이 지역은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된 낙동통의 낙동층(洛東層) · 하산동층(霞山洞層) · 진주층(晉州層) · 칠곡층(漆谷層)으로 이루어져 있다. 낙동강이 곡류하는 만곡부에는 넓은 범람원이 발달하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해발고도와 경사도를 이용하여 고령군의 지세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 범람원은 해발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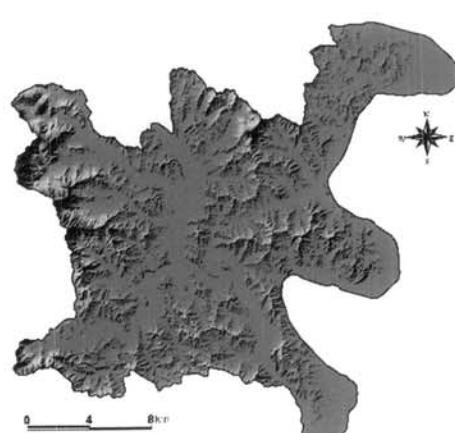


그림 1. 고령군의 지세



(100×100m DEM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그림 2. 고령군의 지형 분류

표 1. 고령군의 기온과 강수량 분포(2006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년
기온(°C)	2.6	3.1	8.2	13.4	18.9	23.4	24.2	28.2	20.6	18.6	10.2	3.6	14.6
강수량(mm)	14.8	25.2	11.5	64.9	120.3	64.0	568.1	127.6	75.7	16.7	35.2	7.5	1131.5

자료: 고령군청 홈페이지의 통계연보

60m 이하이며 경사도 3° 이하인 저지로서, 낙동강과 회천 연안을 따라 분포한다. 구릉지는 해발고도 100m 이하이며 경사도 15° 이하인 완사면으로, 낙동강 연안의 다산면·개진면·우곡면과 고령읍 주변에서 나타난다. 구릉성 산지는 해발고도 300m 이하이며 경사도 15° 이하로서, 고령군 전체에 걸쳐 넓게 나타난다. 고산지는 해발고도 300m 이상으로 가야산 동쪽 산록에 나타난다.

2006년 고령군의 연평균기온은 14.6°C이며 연강 수량은 1131.5mm이다(표 1). 가장 추운 달은 1월로 2.6°C이고, 가장 더운 달은 8월로 28.2°C여서, 기온의 연교차는 25.6°C이다. 강수량은 장마철인 7월에 연강수량의 50% 정도가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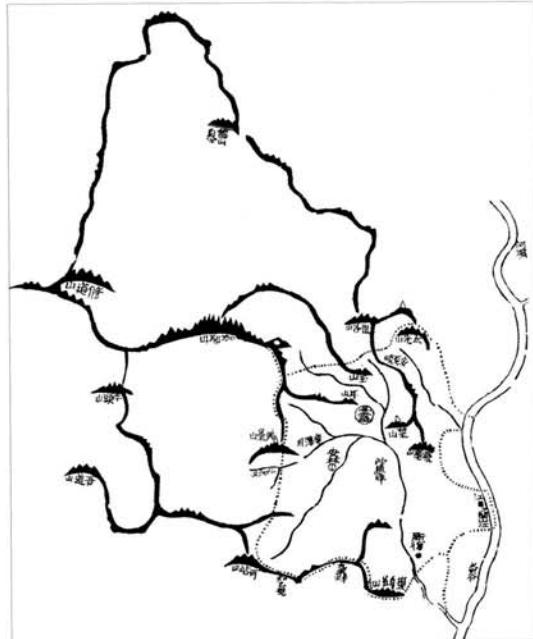
3. 지형경관의 분포

1) 산지 지형경관

(1) 산지체계

고령군 내의 산들은 대부분 가야산 주변의 고산지대와 동부의 구릉성 산지지대에 분포한다.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고령군의 산지체계는 백두대간의 삼도봉(三道峰, 1249m)에서 분기하여 수도산(修道山, 1313m)에 다다른 산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져 고령군의 산줄기로 이어진다(그림 3). 북으로 뻗어 나간 산줄기는 대가천 북부를 크게 돌아 고령군 동부에 위치한 의봉산(535m)-제석산(387m)-청룡산(300m)의 구릉성 산지로 이어진다.

동으로 뻗은 산줄기는 가야산으로 이르러 두 갈래로 갈라진다. 동남으로 뻗은 산줄기는 북두산(北斗山, 688m)-미승산(美崇山, 734m)-주산(主山, 310m)에 이르고, 남으로 뻗은 산줄기는 우두산(牛頭山, 1046m)-오도산(吾道山, 1134m)을 지나 만대산(萬代山, 688m)-노태산(魯泰山, 490m)-시리봉(406m)으로 이어진다.



(대동여지도에서 편집하였음)

그림 3. 고령군의 산줄기

(2) 산지 지형경관자원

고령군의 높은 산지는 대부분 가야산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상에 위치한다. 기반암의 지질은 다양하여 북두산은 선캠브리아기의 반상변정편마암(班狀變晶片麻岩), 미승산은 시대미상의 고령화강암(高靈花崗岩), 주산은 중생대 쥐라기 경상누층군의 낙동층(洛東層), 만대산은 중생대 백악기의 연화동층(蓮花洞層)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승산은 원래 상원산(上元山)이었으나 조선 태조 이성계(李成桂)에 맞선 고려 장수 이미승(李美崇)의 순절을 기려 개명하게 되었다(고령군, 1996). 미승산의 정상부는 평坦하며 그 주변에는 조선 초기에 쌓은 석성(石城)이 있다(사진 1).

미승산에서 동으로 5km 지점에 위치한 주산은 고령의 진산(鎭山)이며, 옛날에는 이산(耳山)으로



사진 1. 미충산성



사진 2. 주산의 가야왕릉군

불렸다. 주산의 남동 능선에는 5~6세기에 축조된 200여기의 크고 작은 고분들이 분포한다(고령군청 홈페이지, 사진 2). 고분이 능선의 정상부에 자리한 것은 왕릉이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보이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위의 높은 왕릉=하늘’이라는 경관이미지를 보여준다(이기봉, 2008). 이러한 배치는 통일신라시대로 넘어가면서 ‘왕릉=산=하늘’이란 인식 아래 점차 평지로 내려가게 된다. 북두산 주변에는 고령화강암이 풍화된 고령토가 매장



사진 3. 덕곡면 노리의 상비리계곡

되어 있어 이를 채굴하기 위한 광산이 있으며, 이를 이용한 도요지가 성산면과 운수면에 있다.

가야산의 남동사면에서 발원한 소가천(小伽川)이 급류를 이루는 덕곡면 노리 일대의 상비리 계곡(사진 3)은 덕곡저수지와 함께 여름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계곡 내에는 대규모 거력을 산재하며 경치가 청량하다.

개진면 오사리의 낙동강 연변 나루터에는 해발 59m의 고립구릉이 나타난다(사진 4). 고립구릉의 형태는 유선형으로 낙동강 흐름과 수직방향으로 뻗어 있고, 주변은 범람원으로서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립구릉은 심층풍화된 기반암이 개석되는 과정에서 남겨진 잔류구릉으로 인젤베르그(inselberg)라고 한다(Thomas, 1974, 231-235).

2) 하천 지형경관

(1) 하천 분포

고령군의 다산면 나정리에서 우곡면 객기리에 이르는 동쪽 경계는 낙동강에 연하여 있다. 성주의 무계진(茂溪津)과 합천의 가물창진(加勿倉津) 사이의 낙동강 구간을 개산강(開山江)이라고 한다(신증 동국여지승람 제29권 고령군조). 이 구간은 중류 부분에서 가장 곡류도가 높다. 따라서 만곡부에는 많은 퇴적물이 쌓여 넓은 범람원이 발달하였고, 공격사면 쪽에는 가파른 단애가 나타난다.

고령군 전역은 회천(會川) 유역에 속한다(그림 4와 표 2). 경북 김천시 증산면 장전리에서 발원한 대가천은 증산면 수도리에서 홀러드는 옥동천과 가천면 신계리에서 유입하는 화죽천, 덕곡면 백동



사진 4. 개진면 오사리의 고립구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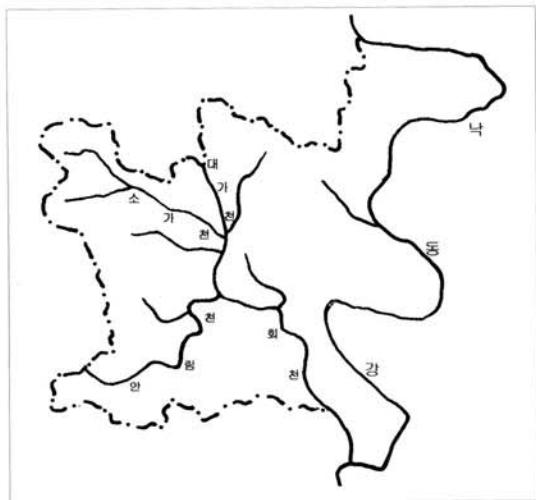


그림 4. 고령군의 하계망

리에서 흘러드는 계정천을 합류한 후 회천이 되어 고령군역으로 들어온다. 회천은 운수면 신간리에서

발원하여 서남으로 흐르는 금성천과 수륜면 백운리에서 발원한 후 동으로 흐르다가 덕곡면 옥계리에서 발원한 오리천을 합류한 소가천을 합류한다.

합천군 가야면 치노리의 두리봉(1327m) 남사면에서 발원한 가야천은 매화천, 성기천, 청현천을 합류한 이천천, 야로면 나대리에서 발원한 월광천, 야로면 치노리에서 발원한 하빈천, 야로면 묵촌리에서 발원한 묵촌천, 묘산면 반포리에서 발원한 후 팔심천과 광산천을 합류한 묘산천 등을 합류하여 안림천(安林川)이 되어 고령군역으로 흘러든다.

용담천(龍潭川)이라고도 불리는 안림천은 동으로 흐르다가 고령군 쌍림면 용동리에서 발원한 용동천을 합류한 후 고령읍 고아리에서 회천으로 유입한다. 회천은 남으로 흘러 신안천과 포두천을 합류한 후 우곡면 객기리에서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2) 하천 지형경관 자원

표 2. 회천의 하계 분류

본류	1지류	2지류	3지류	4지류	발원지
회천					경북 고령군 운수면/수륜면 경계
대가천	옥동천				경북 김천시 중산면 장전리
	화죽천				경북 김천시 중산면 수도리
	계정천				경북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
	금성천				경북 고령군 덕곡면 백동리
소가천	오리천				경북 고령군 운수면 신간리
	내곡천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안림천				경북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
	가야천				경북 고령군 고령읍 신동리
내곡천	이천천				경북 고령군 쌍림면 신촌리
		매화천			경북 합천군 가야면 치노리
		성기천			경북 합천군 가야면 산촌리
		청현천			경북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월광천			경북 합천군 치노리
신안천	하빈천				경북 합천군 야로면 나대리
	묵촌천				경북 합천군 야로면 치노리
	묘산천				경북 합천군 야로면 묵촌리
	팔심천				경북 합천군 묘산면 반포리
포두천	광산천				경북 합천군 묘산면 사리
	용동천				경북 고령군 쌍림면 용동리
	신안천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
	포두천				경북 합천군 덕곡면 포두리

자료: 건설교통부, 2000, 한국하천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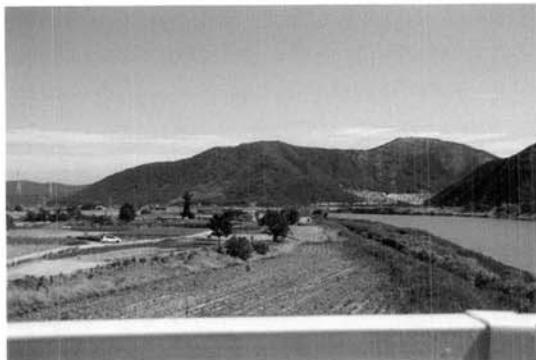


그림 5. 개진면 부리의 자연제방

낙동강 연안의 만곡부를 따라 자유곡류하천의 포인트 바에 해당하는 활주사면이 발달한다. 활주사면의 외곽으로는 하천과 나란히 자연제방이 형성되어 있어 밭이나 취락의 입지로 이용되고 있다(사진 5). 자연제방의 바깥으로는 경사는 완만한 범람원이 발달하며, 자연제방 안으로는 길게 습지가 나타난다.

개진면 부리의 박석진교 지점에는 낙동강의 유로와 평행하게 진촌늪이 발달하여 있다(사진 6). 늪의 길이는 약 1km이며, 폭은 15~65m이다. 1918년 경 이 지역에는 5개의 습지가 있었으나, 인공제방을 축조하고 농경지로 개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지고, 현재는 1개만 남아 있다(천미연, 2007). 진촌늪은 범람에 의해 자연제방과 배후습자가 형성되고, 이후 자연제방을 넘은 유수가 배후습지를 따라 하류로 흘러갔으며, 자연제방이 축조된 이후에는 배후 산지의 소계류가 유입되면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지형은 다산면 호촌리에서도 잘



그림 6. 개진면 부리의 진촌늪

나타난다. 이곳은 금호강이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지점으로, 최대폭 1.5km에 이르는 범람원이 초승달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호촌늪은 크고 작은 3개의 습지로 이루어져 있다(사진 7; 천미연, 2007). 호촌늪도 배후습지로 형성되었으나 인공제방이 축조되면서 낙동강으로부터 단절되었고, 배후산지에서 흘러나오는 소계류가 유입함으로써 습지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호촌늪이 있는 범람원 너머의 낙동강 하상에는 금호강이 유입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력퇴적지형이 유로를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다(사진 8). 사력퇴적지형을 포함한 낙동강 양안을 '달성습지'라고 한다. 사력퇴적지형은 산지와 연결되어 있으나 홍수 시에는 끊어져 하중도를 이루기도 한다. 현재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나, 하천이 역동적인 환경(dynamic environment)임을 무시한 채 범람원에 인위적으로 습지를 조성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다.



사진 7. 다산면 호촌리의 호촌늪



사진 8. 금호강 합류지점의 달성습지



사진 9. 고령읍 외리의 하천(보)습지

그러나 우곡면 봉산리에 분포하는 봉산늪은 그 형성과정이 진촌늪이나 호촌늪과는 상이하다. 봉산늪은 최종빙기의 해수면 하강에 따라 세굴된 하상이 후빙기의 해수면 상승에 따라 매직되는 과정에서, 최종 빙기 동안의 하천종단곡선과 후빙기 동안의 하천종단곡선이 불협화를 이루면서 형성된 것이다(손명원·전영권, 2003). 봉산제방의 바깥으로 는 사력퇴적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 퇴적지형은 만곡부에 쌓인 범람원 활주사면이며, 홍수 시에 분기된 유로가 남아 있다.

낙동강에는 일찍부터 내륙수로가 발달하여, 배가 닿는 지점마다 강을 건너는 나루가 있었다(다산면 노곡리의 노곡나루, 꽈촌리의 꽈촌나루, 호촌리의 사문진나루, 송곡리의 노강나루, 성산면 오곡리의 오실나루, 개진면 부리의 박석진나루, 옥산리의 홀개나루와 잠미나루, 오사리의 도동나루와 개포나루, 우곡면 예곡리의 부례나루, 답곡리의 답곡진나루). 사문진 나루는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와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를 이어주는 나루였다. 조선시대에는 낙동강을 통하여 싣고 온 해산물을 사문진나루에서 하역하여 대구로 운송하였다.

개포는 원래 개산포(開山浦)였으나, 고려 때 강화도에서 만든 팔만대장경을 낙동강 수로를 통해싣고 와 개산포에서 내려 해인사로 운반하였다 하여 '개경포(開經浦)'라고 개칭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경'자를 삭제하여 개포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옛날에는 곡식과 소금을 실어 나르는 배들로 붐비고 곳곳에 창고가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나루의 흔적만 남아 있다.

회천의 고령읍 외리 구간에서는 보(洑)를 건설함



사진 10. 고령읍 양전리 암각화

으로써 형성된 수체가 좋은 습지를 이루고 있다(사진 9). 보를 축조하면 유수를 가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 안에 많은 사력물질이 쌓여 bar를 형성한다. 사면에서 유실된 비옥한 표토가 유수로 운반되어 bar의 표면에 가라앉기 때문에, bar의 표토는 세립이며 매우 비옥하다. 보는 토양물질의 유실을 지연시키고 식생을 통해 영양소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령읍 양전리의 마을 옆 암벽에는 청동기시대의 암각화가 새겨져 있다(사진 10). 그림은 사람얼굴을 추상화한 신상(神像)과 동심원 등 추상적인 도형들이다. 암각화는 쌍립면 안화리에도 있다. 암각화는 한반도의 동남쪽, 특히 경상도 지방에 집중분포한다.

개진면 반운리에는 회천이 감입곡류하다가 절단되어 형성된 곡류 핵과 구하도가 나타난다(사진 11). 구하도는 현재의 범람원과 같은 높이를 보이며, 대부분 농경지로 개간되었다. 그리고 이 구간



사진 11. 개진면 반운리의 구하도와 곡류 핵



사진 12. 고령읍 내곡리의 하식애

의 회천 연안에는 곡류가 절단될 때 형성된 하식애가 나타난다(사진 12). 이 구간에 나타나는 감입곡류의 절단은 지난 최종 빙기시의 해수면 하강에 따른 하방침식과 냉량 습윤한 기후에서의 하천 침식력 증가로 형성되었다(손명원, 2001). 이 구간의 구하도는 후빙기의 해수면 상승에 따라 매직되어 현 범람원과 같은 높이를 나타낸다.

우곡면 야정리의 회천 하안에는 범람원과 모래톱이 광범위하게 분포한다(사진 13). 인공제방을 축조하여 범람원의 일부는 농경지로 개간한 이후, 인공제방 외측에 다시 범람원이 형성되고 있다. 하상에 운반 중인 모래가 곳곳에 쌓여 있어, 유로는 그물모양으로 분기하여 망류의 형태를 띤다.

우곡면 대곡리의 농경지 내에는 소규모 연못이 있다(사진 14). 이 연못은 배후습지였으나 농경지로 개간되는 과정에서 인공제방 축조로 하천과 단절된 채 남아있다.

우곡면 월오리의 회천 서안에는 높이 수십m의 하식애가 형성되어 있다. 하식애에는 절리를 따른



사진 14. 우곡면 대곡리의 배후습지성 호소

차별풍화로 균열이 폭 넓게 진행되어 있으며, 갈라진 암괴가 무너진 곳에는 얇은 동굴이 형성되어 있다. 하식애 전면의 하상은 과다한 모래가 운반중 이어서 유로가 망류의 형태를 띤다(사진 15).



사진 15. 우곡면 월오리의 하식애

3) 지형경관의 분포

산지지역에 분포하는 지형경관은 산체를 구성하는 기반암이 만드는 지형과 산지 내를 흐르는 골짜기의 지형으로 구분된다. 고령군 내에 분포하는 주요 산지지형경관은 고령읍의 미승산과 주산의 산체, 덕곡면 노리의 상비리 계곡, 개진면 오사리의 고립구릉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산과 미승산은 하나의 등산로로 연결되어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가야산과 덕곡저수지를 잇는 상비리 계곡은 여름철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그림 5).

하천 연안에 분포하는 지형경관은 하천의 퇴적 작용으로 이루어진 지형과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구분된다. 고령군 내에 분포하



사진 13. 우곡면 야정리의 모래톱과 범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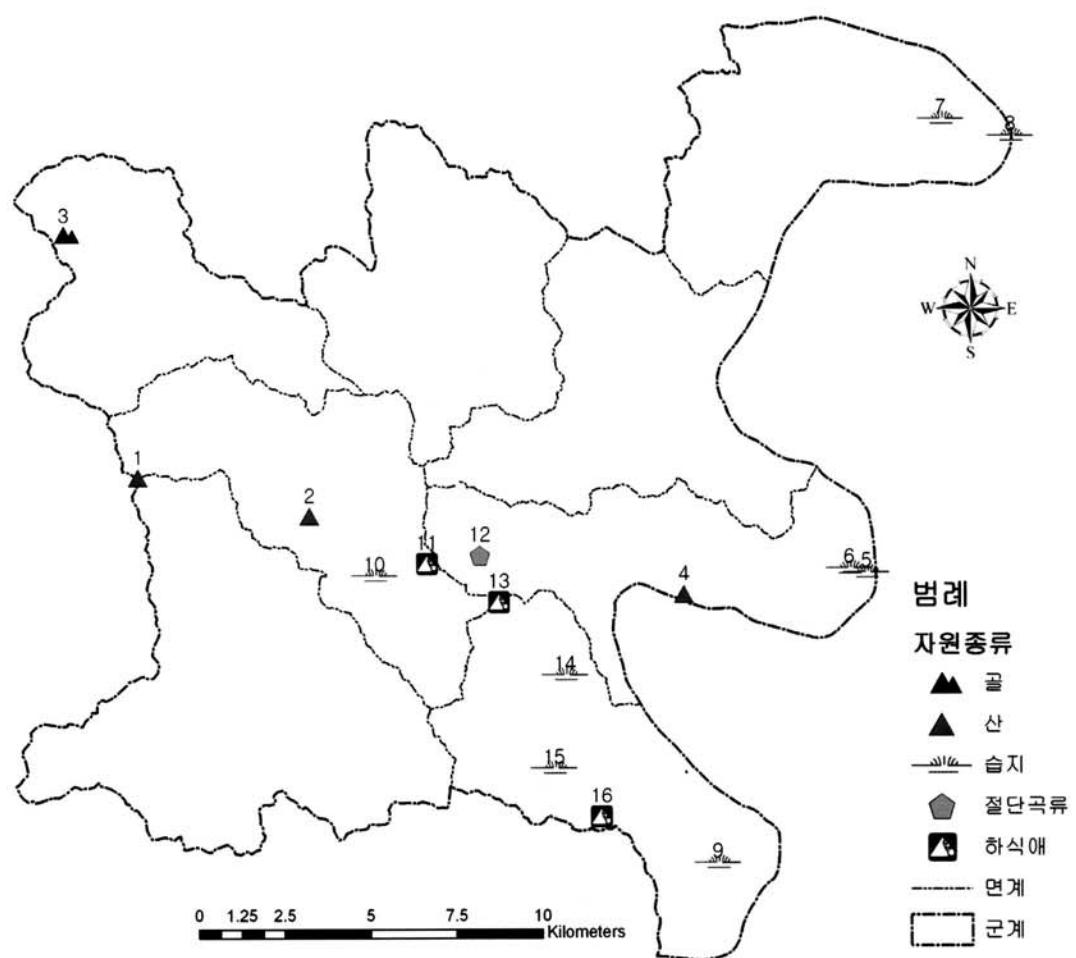


그림 5. 고령군의 지형경관자원 분포

는 주요 하천지형경관은 개진면 부리의 진촌늪, 다산면 호촌리의 호촌늪과 달성습지, 우곡면 봉산리의 봉산늪 등의 자연습지, 고령읍 외리와 개진면 반운리의 보 축조에 따른 인공습지, 개진면 반운리의 곡류 절단에 따른 구하도와 곡류 핵, 고령읍 내곡리와 우곡면 월오리의 하식애, 우곡면 야정리의 넓은 모래톱과 망류하도 등이다.

낙동강 연안의 자연습지들은 생태학적 가치가 크지만 농경지로 둘러싸여 여러 가지 쓰레기들로 오염되고 있어 보존대책이 시급하다. 개진면 반운리의 보 상류에 나타나는 인공습지는 주변 양돈장

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습지의 교목(버드나무)이 홍수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제거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개진면 반운리의 구하도와 곡류 핵은 중고등 학생들의 학습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

4. 활용방안

지형경관은 생물자원·문화자원과 더불어 생태관광의 주요 대상이다. 특히 지리관광에서는 지형경관의 형성과정에 관한 이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손명원, 2006). 서구의 여러 선진 나라에서는 지형경관과 생태자원을 합하여 자연생태공원으로 개발하고, 자연관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전영권·손명원, 2004). 고령군에는 타지역에 비하여 보존할만한 가치가 높은 지형경관자원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지형경관을 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방치하여 왔고, 그러는 사이에 지형경관의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점차 훼손되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가치있는 지형경관을 발굴하여 보존하고, 나아가 생태관광 또는 지리관광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고령군 내에 분포하는 주요 산지지형경관은 미승산과 주산이다. 주산은 고령군의 진산이며, 대가야국의 고분들이 분포한 고령군의 정신적 지주이다. 주산은 고령군민들이 자주 찾고, 아끼고, 가꾸어서 주민들과 산이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산과 미승산을 하나로 엮는 등산로를 개발하고 공원으로 조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현 시대를 이끄는 주요 패러다임 가운데 하나는 생태주의이다. 인간이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에만 몰두해온 탓에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이 매우 훼손되었다. 인간은 자연환경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길은 매우 다양하다.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는 수동적인 방법이 있는 반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능동적인 방법도 있다. 이러한 방법들의 이면에는 후손들에게 인간과 자연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많은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고령군 내 낙동강 연변에는 범람원 상에 자연습지가 많이 분포한다. 다산면 호촌리의 호촌늪과 우곡면 봉산리의 봉산늪은 대부분 농경지로 개간되어 규모가 작다. 하지만 개진면 부리의 진촌늪은 자연제방 위의 가옥들과 배후습지의 연발 등 비교적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므로 생태공원을 조성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또 이곳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과 교량으로 연결되어 많은 소비자들

의 접근성이 뛰어나므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개진면 반운리에는 감입곡류의 절단으로 만들어진 구하도와 곡류 핵이 분포하고, 보상류에 하천습지가 형성되어 중고등학생들의 학습장소로 적합하다. 가까운 장소에서 감입곡류의 절단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고,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온 보의 생태학적 순기능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도 미흡한 상황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탐구학습장으로 꾸밀 수 있을 것이다.

5. 종합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령군에 산재하는 지형경관자원을 발굴하여, 그 분포를 지도화 함으로써 지형경관자원의 관리에 기반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지지역에 분포하는 지형경관은 고령읍의 미승산과 주산, 그리고 덕곡면 노리의 상비리 계곡, 개진면 오사리의 고립구릉 등이다.

둘째, 하천 연안에 분포하는 지형경관은 개진면 부리의 진촌늪, 다산면 호촌리의 호촌늪과 달성습지, 우곡면 봉산리의 봉산늪 등의 자연습지, 고령읍 외리와 개진면 반운리의 보 축조에 따른 인공습지, 개진면 반운리의 곡류 절단에 따른 구하도와 곡류 핵, 고령읍 내곡리와 우곡면 월오리의 하식애, 우곡면 야정리의 넓은 모래톱과 망류하도 등이다.

셋째, 개진면 부리의 진촌늪은 전형적인 범람원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대도시와의 접근성도 양호하므로 생태공원을 조성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개진면 반운리에는 탐구학습장을 조성하여 감입곡류의 절단과 연관된 환경변화와 보의 생태학적 순기능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하여야 한다.

문헌

고령군, 1996, 고령군지.

고령군청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손명원, 1998, 문경의 자연지리, 한국지역지리학회

- 지, 4(2), 15~30.
- 손명원, 2001, 우리나라 저위하안단구의 형성요인,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2), 71~81.
- 손명원, 2002, 상주의 자연지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3), 281~294.
- 손명원, 2006, 금호분지 내 지리관광자원의 자연지리학적 배경,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2), 202~214.
- 손명원·전영권, 2003, 낙동강 하류 연안 자연습지의 자연지리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1), 66~76.
- 오홍석, 1994, *취락지리학 -농어촌의 지역성격과 재편성-*, 교학연구사, 서울.
- 이기봉, 2008, 조선시대 읍치 경관의 원형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 동계 학술대회 요약집.
- 전영권·손명원, 2004, 대구 비슬산지 내 지형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1), 53~66.
- 천미연, 2007, 범람원에 형성된 호소성 습지에 관한 연구 -낙동강 종류를 사례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철호·김성용·윤성택, 2005, 오대산 국립공원의 지질 및 지형경관자원 조사를 통한 관광지질학적 가치 증진: 지구과학의 대중적 이해, 한국지구과학학회지, 26(3), 218~231.
- 허철호·최상훈, 2007, 관광지질학 활성화를 위한 지질 및 지형경관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국지구과학학회지, 28(1), 75~86.
- Thomas, M. F., 1974, *Tropical Geomorphology: A study of weathering and landform development in warm climates*, Macmillan, London.

(접수 : 2008. 5. 21, 채택 : 2008. 7. 29)